

터키와 그리스로 떠나는 효도여행 - 2



9/16 근황원(구원사, 터키 에베소/보드룸)

아침에 일어나 쉬린제 마을을 산책하는데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과 햇살이 막 떠오르는 구름과 능선이 겹쳐지며 정겹고 아름다운 장면이 자연스레 연출된다. 새벽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는 한국 농촌의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호텔에서 전통 터키식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터키 내 지역 여행 중 마지막 목적지인 '보드룸'을 향해 렌터카의 시동을 힘차게 건다. 달리는 길에는 히치하이커들이 자신의 목적지를 적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가끔 보인다. 나도 예전 대학 시절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무전 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오른다. 그땐 한국에서도 히치하이킹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사람 무서운 세상이 되어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진기한 장면이다. 차량이 거의 없는 한적한 도로를 신나게 달리는데 좌측으로 거대한 호수가 보인다. 바로 검색을 해보니 'Bafa Nature Park' 호수다. 가로 14km, 세로 6km에 이르는, 파도마저 출렁이고 있는 넓디넓은 호수다.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은가? 차에서 잠깐 내려 기지개도 켜고 기념촬영도 하며 광대한 호수를 마음속에 한껏 담아두고 다시 달린다. 20여 분을 달리니 질푼 호수가 우리를 놓아준다.

광활한 대지를 다시 하염없이 달린다. 주유소는 도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 자동차 연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드디어 우측으로 에게해가 모습을 드러낸다. 에게해를 따라 달리는 전경 하나하나가 한 장의 그림엽서다. 보드룸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토르바라는 아름답고 전형적인 휴양도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마을에 둘러 멋진 해변과 어우러진 요트들을 마주한다. 이제 종착지인 '보드룸'이 지척에 있다. '구글맵'이 길을 잘 안내해줘서 보드룸에 예약한 호텔도 바로 찾아준다.(구글맵 참 고마운 녀석이다. 렌터카로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길 위에서 헤매게 한 적이 없다.)

이 호텔 패밀리룸은 거의 콘도 수준으로 식기를 갖추고 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준비해간 음식으로 늦은 점심식사(햇반, 순두부찌개, 황태국밥, 고추참치, 김, 고추장 등)를 한다. 역시 한국음식이 최고다. 부모님도 오랜만에 대하는 한식을 너무나 반가워 하신다.(나 역시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 덕분에 속도 매우 편해졌다고 하신다. 아침 호텔 옆에 약국이 자리하고 있어서 어머니 위장약도 사서 드리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호텔은 해변에서 약 300m 거리로 지척이다. 어제(9/15 목) 날짜로 바이람 연휴기간이 끝나서 도시는 한가하고 공기는 맑고 태양은 작열한다. 여행하기엔 너무나 좋은 최적의 환경이다. 호텔에서 한숨 자고 일어나 에게해에 잠시 몸을 담근 후 15세기 오스만투르크제



1

국에 최후까지 저항한 십자군의 마지막 거점인 '보드럼 성'을 거쳐, 풍차가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 boardsrum 시내와 에게해안의 절경과 일몰을 감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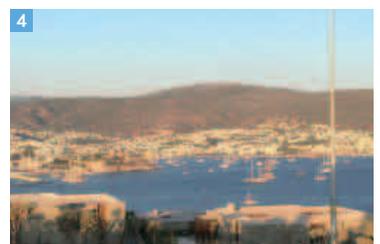
해변 레스토랑에서 에게해를 바로 옆에 두고 찰랑거리는 파도 소리를 벗 삼아 저녁식사(오징어튀김, 새우튀김, 양고기 케밥, 괴프테, 필라브, 음료수 등)를 우아하게 마치고 해변을 산책하다 숙소로 돌아온다. 호텔에서 내려다보는 밤야경이 '터키의 산토리니'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다.

9/17 토요일(8월차, 터키 boardsrum/이스탄불)

개운한 기분으로 기상하여 boardsrum 공항에서의 이스탄불행 국내선 출발시간 관계로 8시 조식을 호텔 매니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30분 앞당겨 급하게 식사를 마친 후 예약해둔 택시(택시비 120리라)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한다.

boardsrum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재미있는 해프닝을 하나 선사해준다.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면서 챙겨온 삶은 달걀이 가벼운 문제를 일으킨다. 어머니는 무심결에 달걀 1개를 윗옷 주머니에 넣고 통과하다가 사건의 발단이 된다. 어머니와 함께 달걀 1개만 달랑 검색대를 재통과하란다.(달걀이 폭발물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공항직원들이 공항이라는 특성상 사무적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법도 한데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웃으면서 매우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긴장되기는 커녕 한 편의 코미디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하다.(터키와 한국은 다혈질, 장유유서, 어른공경 면에서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것 같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부모님이 타시면 바로 자리를 양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미덕을 머나먼 터키땅에서 목격할 줄이야...) 국내선 공항에는 터키항공을 비롯해 Pegasus, anadolu jet, ONUR air 등의 항공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비행기는 예정시각보다 20여 분 지연 이륙하여 이스탄불 사비하 공항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역시 터키는 어디를 가나 기대에 부응하듯 하늘은 높고 푸르고 맑은 날씨다. 공항버스를 타고 탁심 광장 도심에 도착한다. 부모님께서 한식을 드시고 싶어 하셔서 광장 근처에 있는 한인식당으로 가서 점심식사(두부조림, 김치전골 등)를 한다. 해외에선 한식 가격이



1 쉬린제 마을의 일출

2 환상의 에게해변

3 boardsrum 석양 전경

4 boardsrum 항공 전경

5 boardsrum 숙소 전경



만만치 않다. 한식으로 힘을 낸 우리는 택시 광장에 있는 '터키의 명동거리'라 할 수 있는 '이스티클랄 거리'를 산책 겸 관광 및 쇼핑에 나선다. 호텔, 대사관, 은행 등의 주요 건물과 명품 가게, 식당, 기념품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상점이 골고루 갖춰진 이스탄불 제일의 변화가로 쇼핑의 명소이다.

택시 광장에서 우리가 애용하는 80T 버스를 타고 저녁 무렵 숙소로 도착한다. 숙소로 도착하니 민박집 여주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 언니 집에 가고 없고 터키인 남편만 외로이 집을 지키고 있다. 오늘은 형과 먼저 이별하는 시간이다. 형은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관계로 오늘 밤 이스탄불공항에서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 형을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서 다녀야 할 그리스 여행지역을 단기숙성과정으로 공부하다가 잠자리에 든다.

9/18 일 끝남 (9월18, 터키 이스탄불)

아침에 일어나 먼저 한국에 도착한 형과 안부전화를 나눈 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위치한 '메디쿨레' 동네 탐방에 나선다. 동네 인근에 위치한, 꽃으로 뒤덮인 예쁜 공원에서 산책도 하며 독서도 하며 체력을 충전한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는 테오도시우스 옛 성벽이 공원의 한쪽 면을 울타리처럼 차지하고 있어서 신구의 조화가 절묘하게 이루어진 공원이다. 공원을 떠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관광지가 아닌 순수한 터키인들의 삶의 내면을 그대로 들여다본다. 터키가 실업률이 높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여자는 없고 남자만 보인다) 가게마다 모여서 마작이나 포커 등으로 소일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빨래도 장대에 매어 달아서 창문으로 내걸어 훑날리는 바람에 말리고 있다. 아직 한낮 기온은 30도 이상을 오르내린다.

부모님도 여행 막바지라 지치시고 나도 남은 그리스 일정을 소화하려면 쉬는 게 상책이다. 그리스 아테네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에서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고 왔는데 터키와 아테네에서 마저 늦더위에 시달려야 하다니... 숙소에 돌아

와서는 침대에 누워 뒹굴며 아테네 유적지 관광, 고린도 운하 투어, 수니온 곳 일몰 감상 등 그리스 여행 계획을 구상해 본다. 오후 내내 폭 쉬다가 이스탄불 공항으로 이동한다. 부모님은 이스탄불공항에서 밤 비행기로 인천공항으로, 나는 같은 시간 그리스 아테네 공항으로 날아가는 일정이다.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나가시도록 수속을 밟아드리고, 나는 그리스 아테네공항으로 출발하여 자정 무렵에 그리스 아테네의 한인민박집에 도착한다.

9/19 일 끝고 비 잠깐(19일, 그리스 아테네)

아침에 느낌이 일어나 한식으로 조식을 해결하니 곧이어 주인장이 아테네 여행 관련 브리핑을 해준다. 한인민박집을 이용하는 장점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아테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를 수십 년 간 거주한 경험을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 최대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동선까지 알려준다. 내일의 '고린도 운하 및 수니온 곳 일몰 투어' 예약을 마치고(함께 숙박하는 사람들-남자 2명, 여자 1명-과 함께 공동으로 예약을 진행하여 단독으로 투어 신청하는 것보다 50유로 저렴하게 예약함) 아테네 관광에 나선다. 관광 동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걷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해서 시작은 도보이동이다. 먼저 도착한 곳은 근대 올림픽개최지인 '올림픽스타디움'이다.

1896년에 제1회 근대올림픽이 열렸던 이 경기장은 2004년 올림픽 경기 동안에도 양궁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요즘은 스포츠와 관련된 다른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도 쓰인다. 중요한 역사적인 건물로, 아테네 시의 오래된 과거와 현대적인 모습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아테네의 중심 광장인 '신타그마 광장'이다. 길 건너편에 '국회의사당'과 '무명용사의 비'가 있다.

6 이스탄불 사비하 공항에서

7 이스티클랄 거리의 케밥상

8 이스티클랄 거리 전경

9 이스탄불 숙소 앞 공원 전경(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우측에 보인다)



마침 매시 정각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경비하는 근위병 교대식을 흥미롭게 지켜본다. 이 시간에 맞추어 단체관광객들도 버스로 몰려와서 교대식을 구경한다. 주위에 동양인이라고는 중국인 몇 명이 보이고 한국 사람은 나뉘에 없다.

국제회의장과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자피온' 건물과 '제우스 신전'(돈, 시간 관계상 입장 안함)을 지나니 바로 로마 시대의 개선문인 '하드리아누스문'이 당당히 버티고 서있다. 아크로폴리스박물관을 스쳐 지나 아테네 여행 하이라이트 중의 하이라이트인 '아크로폴리스'에 입장한다.(입장료 20유로) 아크로폴리스의 의미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한다. 말 그대로 아테네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먼저 '헤도데스 아티쿠스 극장'이 나를 반긴다. 지금도 공연을 한다고 하더니 한창 공연 준비 중에 있다. 다음으로는 웅장하고 장대한 기둥들로 만들어진 아크로폴리스 입구인 '프로펠리아'와 '니케(나이키)신전'이다. 이 가운데 통로로 황제가 드나들었다고 하기에 나도 황제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통과한다. 다음 순서는 두말이 필요 없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 등재를 자랑하는, 2500년 동안 서구 건축양식의 모델이자 원형이 되어온, 도리스 양식의 최고봉인 '파르테논 신전'이다.(온갖 수식어와 미사여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교과서에서나 접하던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신전의 한쪽 벽면은 복원 및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파르테논 뒤편 언덕 아래로 내가 걸어서 지나온 '제우스 신전'과 '하드리아누스 문'이 저 멀리 보인다. 아크로폴리스도 현재 계속 발굴 중인 공사현장이 널려있어서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다. 아크로폴리스를 둘러보는 동안 간간히 적은 양의 비가 내린다. 땀벌보다 다니기가 수월해서 다행이다(오늘은 최고온도가 무려 34도까지 치솟았다.) 아크로폴리스의 전망대에 섰다. 아테네 시내 사면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역시 천혜의 요새이자 전략적 요충지이다.

10 올림픽스타디움 전경

11 국회의사당 앞 근위병 교대식 장면

12 자피온

13 헤도데스 아티쿠스 극장

14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15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다음 순서로 이오니아식 건축의 대표선수이자 아테네 전성기 최후의 걸작이라는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터만 행 하나 남아있는 '아테네 옛 신전'과 아크로폴리스에서 송배되었던 판드로소스의 성역인 '판드로세이온'을 거쳐 처음에 들어섰던 입구인 '프로펠리아'를 통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아크로폴리스를 나선다.

'프로펠리아'를 나서서 우측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사도바울이 전도여행 중 아테네에 들러서 수많은 철학자와 쟁론하며 복음을 전하는 연설을 한 장소로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이 나온다. 이 연설을 사학자들은 기독교와 헬레니즘 문명이 처음으로 만난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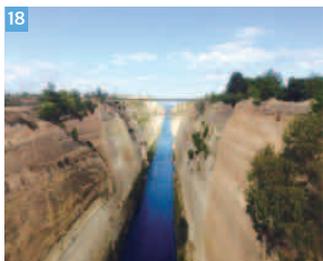
고대 아고라(Agora)를 지나서 오후 3시경 '모나스티라키 광장'에 도착한다.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맛있게 먹는다. 그리스 전통음식인 돼지고기 수블라키(꼬치) 2조각, 그리스샐러드와 음료수를 시켰는데 수블라키 맛도 좋지만 샐러드 맛이 예술이다. 그리스 치즈에 토마토, 오이, 양파, 올리브 열매, 올리브 오일이 들어있는 건강식이다. 수블라키는 기본이 4꼬치인데 2꼬치만 시켜도 양이 많아서 배가 부르다. 그리스는 터키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라 음식문화가 비슷하다. 대표적으로 터키와 그리스에 모두 존재하는 음식인 '케밥'이 있다.



'모나스티라키 광장역' 나와서 바로 왼쪽이 '벼룩시장'(flea market)이다. 식후 소화도 시킬 겸 구경에 나선다. 각종 기념품, 잡화,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는데 가격이 꽤 저렴하다. 모나스티라키 광장역에서 지하철 1회권(1.4유로)을 자동발권기에서 끊는데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잔돈 0.1유로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란다. 그리스는 현재 IMF 체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실업률도 최악이어서 노숙자들도 눈에 많이 띈다. 정 많은 한국인으로서 거절할 수 없어서 노숙자에게 건네주고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에 오른다.

오후 4시경 숙소 도착하면서 오늘 일정은 짧고 굵게 마무리하기로 한다. 여행 다니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 많은 것을 보겠다고 과욕을 부리다 보면 '휴가가 아닌 '고된 노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여행기간 내내 평균 9,000걸음 정도를 걸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여행기간 중 최고인 14,000걸음을 찍는다. 그만큼 아테네 도시 자체가 유적이 많이 산재한 곳이고,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걸을 수밖에 없는 동선이라 줄이고 줄였음에도 최고의 행보를 기록한다.

9/20 화 맑음 (11월차 그리스 고린도/미케네/나프플리오/누네온곶)



오전 9시 정각에 숙소 바로 앞에서 전날 예약해둔 한국인 가이드 투어 차량에 탑승한다. 어제 보았던 아테네 '국회의사당'을 지나서, 불가리아와 알바니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위험하다고 알려진 '오모니아 광장',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의 날개가 녹아 추락하는 형상의 조형물로 유명한 '가라이스까끼 광장'을 지나 아테네 시내를 벗어난다. 첫 목적지인 '고린도'를 향해 달린다.

아테네에서 서쪽방향으로, 아테네 공항에서 올림피아(올림픽 성화 채화 장소)를 잇는 고속도로를 1시간 30분여간 달려 '고린도 운하'에 도착한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인에 의해 1893년에 완공된 약 6km 길이의 고린도 운하로 인해 이오니아해와 에게해 간 400여 km의 거리를 단축했다고 한다. 마침 운하를 가로지르며 배 3대가 나란히 통과하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운하를 지나 '신고린도'에 도착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바울을 기념하는 교회에 들러 잠시 바울 선생의 힘들고 고되었던 전도 여정

16 돼지고기 수블라키(꼬치)와 그리스샐러드

17 모나스티라키 광장역 벼룩시장

18 고린도 운하

을 더듬어본다. 그리스정교회는 교회마다 지성소(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가장 거룩한 장소)가 있고 위에서 봤을 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옛 고린도 교회의 1대 주교가 '사도바울', 2대 주교가 '아볼로'였다고 한다. 이어서 '구고린도'로 향한다.

항구도시였던 구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1천 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고린도에 입향한 선원들과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춘행위를 하기도 한 음탕하고 타락한 도시였다고 한다. 현재는 지진에 의해 파괴된 '구도린도'의 흔적만이 쓸쓸히 남아 있을 뿐이다.

'고린도'는 그리스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큰 번영을 누렸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활동을 펼친 곳이기도 하여 성지순례 장소로도 유명하다. 유적지 안에는 기원전 6세기경 건설한 아폴론 신전이 있고, 신전 남쪽으로 아고라, 상점 등의 흔적이 남아있고 고대 극장터도 보인다. 유적지 입구 근처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시저 일족의 의상 등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고린도 박물관'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입장은 생략한다.

'구고린도' 앞 식당에서 그리스 국민음식인 '기로스'(피타빵에 썰어 낸 고기와 양파, 토마토 등 채소를 넣고 마늘과 오이 등을 갈아 섞은 그리스 요거트와 치즈가 들어있다.)로 허기를 달래고 '미케네'로 발길을 돌린다. 일찍이 '미케네'는 호메로스에 의해 "길이 넓고, 금빛



19 구고린도 유적

20 미케네 문명 유적지와 성

21 구고린도 가는 도중 해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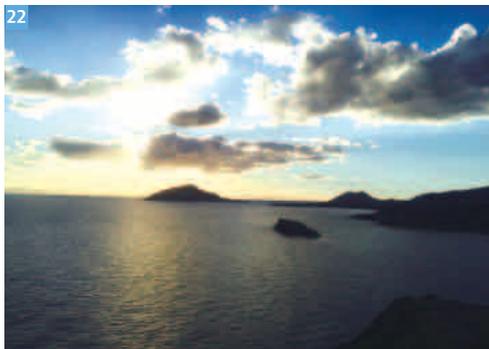


21

찬란한” 도시라고 찬양되었으며 트로이 시를 약탈한 아가멤논 왕이 살던 도시였다.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 성을 쌓아 천연의 요새로 자리 잡고 있다.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에나 접했던 ‘미케네 문명’의 발상지에 발을 디디고 있는 감회가 남다르다.

미케네에서 30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터키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리스의 임시수도였던 ‘팔라미디 성채’가 있는 ‘나프플리오’이다. 이 성채(입장료 8유로)는 잠시 감옥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가이드의 말에 오래된 고성인 웬지 을씨년스러워 보인다. 성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옥색의 바다와 어우러져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자태를 자랑한다. 침입해 오는 외적의 동태를 살피기에 최적이고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난공불락의 성채가 자리하고 있다. 성채 곳곳을 둘러보고는 갈 길을 서두른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수니온 곳’을 가기 위해 아테네 방향으로 달린다. 우측으로 멀리 에게해의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졌던 장소를 지나서 남쪽으로 70여 km를 더 달린 후, 저녁 무렵 ‘수니온 곳’에 도착한다. 여기엔 포세이돈 신전(입장료 8유로)이 있는데 바다의 신이 자리 잡고 있을 만한 곳이다. 사방으로 탁 트인 높은 언덕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한 신전은 육중한 무게감과 위용을 한껏 뽐내고 있다. 여기서 보는 일몰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신전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를 비롯한 관광객들은 저마다 석양을 감상하고자 자리를 한둘씩 잡는다. 여기서 일몰을 즐길 수 있도록 문 닫는 시간을 늦춰준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노부부, 단체관광객 등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결 약해진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일몰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 수니온 곳의 석양 풍경은 세계 3대 석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석양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해가 기울면서 바다에서 반사된 빛과 조화를 이루며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향연은 나를 황홀하게 하고, 살아서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게 한다.



해가 떨어지자마자 신전 관리인이 어서 나가라고 성화다. “그럼~ 관리인도 일찍 퇴근하고 싶겠지...” 라는 이해의 마음으로 낙조의 여운을 뒤로하며 ‘수니온 곳’을 떠난다.

해변의 멋진 길을 달려 아테네에 도착해서 늦은 저녁을 먹는다. 가이드가 안내해 준 현지 맛집에서 우리 일행은 “그리스식 케밥, 무사카(가지, 소고기, 감자 혼합요리), 꼬뜨블로(닭고기요리), 히리노게(돼지고기요리), 유베지(밀가루로 만든 쌀+소고기 요리), 그리스 샐러드, 음료수”를 먹고, 마시고, 정담을 나누며 그리스에서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달랜다.

9/21 수니온(2일차, 아테네/이stanbul/서울)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항상 귀국하는 길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공항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바로 옆이고 아테네 주요 관광명소를 도보로 둘러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한인민박집은 다음에 그리스를 들를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묵고 싶은 곳이다.

숙소 바로 옆 힐튼호텔 공항버스 정류장에서 15분 배차 간격으로 24시간 운행되는 공항버스를 타고 아테네공항으로 출발한다.(요금 6유로) 공항버스 기사아저씨의 운전기술이 아찔하면서 대단하다. 운전하면서 버스티켓 끊어주고 잔돈 교환해주고... 타고 있는 나는 살짝 불안하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무료 와이파이기가 잘 터진다. 비행기 탑승시간을 기다리며 기사검색 중 “19일 밤에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주로 아프리카, 중동 출신 난민이 거주하는 캠프에서 터키로 대량 송환된다는 소문에 항의 시위 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으로 난민 4천여 명이 긴급대피했고, 작년에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이 85만여 명에 이르며, 난민 문제에 잘 대처 못 할 경우 국수주의와 인종혐오주의가 활개 칠 가능성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접한다.

터키의 테러, 그리스의 난민사태에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무사하게 잘 다닐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 산토리니/자킨토스/크레타 섬 순례 등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아쉬움도 간직하며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

22 수니온 곳에서 바라본 일몰 장면

23 팔라미디 성채에서 내려다 본 나프플리오 시내 전경



23

스탄불 공항에서 터키로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출입국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스탄불 공항 ‘transfer desk’에서 항공권 발권과 짐을 보내는 수속을 마치고 국제선 출국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을 끝으로 대망의 ‘터키, 그리스 효도 여행’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시 한수 소개하면서 효도여행기를 맺는다. 

“아버이 살아 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